



감정 메마른 의사가 세상과 소통 하는 법

장혁 주연 메디컬 드라마 '뷰티풀 마인드'

KBS 2TV 20일 첫 방송 ... SBS '닥터스'와 맞대결

무한경쟁 사회, 기적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만 같은 현대 사회에서 이타심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KBS 2TV가 새로 선보이는 월화드라마 '뷰티풀 마인드'는 실력은 자타공인 최고지만 사실은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는 의사가 세상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게 되면서 시작되는 변화를 이야기한다.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닌 공부하는 신경외과 의사 이영오 역은 장혁(40)이 맡았다.

장혁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사이코패스 같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감정 소통이 되지 않는 인물"이라고 자신의 역할을 소개했다.

2007년 MBC '고맙습니다' 이후 오랜만에 메디컬 드라마에 출연하는 장혁은 "당시 맡았던 의사는 겉으로는 차갑지만 마음은 따뜻한 인물이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감정이 없다. 사람이 죽어도 안타까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는 "30대가 돼서 맡은 첫 배역이 '고맙습니다'의 흉부외과 의사 민기서였는데 40대가 되어서도 '뷰티풀 마인드'에서 의사를 맡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고맙습니다"에서 의학 자문을 해주셨던 의사분이 이번 드라마에서도 자문을 맡아주셔서 친밀감이 느껴졌다"며 웃었다.

장혁은 "당시에는 흉부외과였고 이번에는 신경외과여서, 가슴에서 머리로 좀 올라왔다"면서 "수

술 장면에서도 흉부외과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를 당부했다.

이영오는 사람들 앞에서는 소통되는 척하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는 감정이 없는 모습이 드러나는 인물.

장혁은 "두 가지 버전의 연기를 보여드리게 됐다"며 "사이코패스 같기도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아닌, 경계선을 잘 지키는 게 저로서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장혁은 영화 '화산고' 이후 15년 만에 허준호와 호흡을 맞추게 됐다.

그는 "당시에는 감정이 풍부하시고 마초적이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15년이 흐르고 만나니 많이 달라졌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이에 허준호는 "당시 장혁은 열정만 가지고 있는 배우였는데 그 사이 그릇이 많이 커져 있다. 멋있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극중 대한민국 1세대 신경외과 의사인 이건명 신경외과 과장으로 출연하는 허준호는 이번 작품으로 9년 만에 TV에 복귀한다.

"그동안 삶 공부를 했다"고 말한 그는 "너무 오랜만이라 동료들에게 폐를 끼칠까 걱정"이라면서 "우리 드라마는 남자들도 볼 수 있는 드라마"라며 적극적으로 홍보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우연히 목격한 사고를 통해 이영오와 갈등을 겪으면서 그의 마음을 여는 교통 순경 계진성 역은 신에 박소담(25)이 맡았다.

박소담은 "장혁 선배님과 나이 차(15살)가 많이 나서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선배님의 미소 한방에 걱정이 다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늦게 합류하게 됐는데 그런 티를 안 내려고 준비를 많이 해왔다"며 "진성이를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물로 표현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뷰티풀 마인드'는 마찬가지로 의학드라마인 SBS TV '닥터스'와 같은 날 방송을 시작한다.

이에 대해 장혁은 "시청률에 대한 부담은 늘 있다"며 "그 부담감에 대처하는 건 그제, 어제의 활영, 앞으로의 활영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다. 그러다 보면 좋은 작품, 그리고 좋은 시청률이 따라올 것이라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연출을 맡은 모완일 KBS PD는 "의사라는 직업을 소재로 하기는 하지만 작품의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 (두 작품을 골라)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보다 사실적인 의사를 그리는 쪽('뷰티풀 마인드')을 더 좋아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러운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모 PD는 "메디컬은 물론 스릴러, 휴먼 등 다양한 장르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색다른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환자와 동료 모두에게 신뢰받는 흉부외과 교수 현석주 역은 윤현민이, 이영오의 오랜 연인이자 신경과 의사인 김민재 역은 박세영이 맡았다.

20일 오후 10시 첫 방송. /연합뉴스

박유천, 성추문 논란 '시끌'

성폭행 혐의로 피소 ... 진위 여부 조사 중

'명예훼손' vs '원인제공' 네티즌 갑론을박

아이돌 한류스타의 치명적인 추문이 다. 그룹 JYJ 멤버이자 배우인 박유천(30·사진)이 지난 13일 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추락 위기에 놓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가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상대 주장은 허위 사실로 일방적인 주장이며, 유명한 흡집내기를 담보로 한 악의적인 공갈 협박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나 이런 충격적인 추문에 휘말린 사실만으로도 박유천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현재 그가 강남구청에서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이란 신분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4일은 박유천의 생일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당일 생일파티를 하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퍼졌고, '절망적이다', '원인 제공은 박유천이 했다' 등 갑론을박이 쏟아졌다. 박유천은 한국을 넘어 일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끈 K팝 대표 그룹의 멤버이다.

동방신기에 이어 JYJ로 활동하며 K팝 한류를 이끌었고 배우로도 영역을 넓혀 20대를 대표하는 꽃미남 배우 재목으로 성장했다.

특히 드라마 '성균관 스텐들'에 송중기, 유아인과 함께 출연해 주목받았고 '유태방 왕세자'와 '보고싶다', '스피릿데이'에 출연하며 연기력도 인정받았다. 또 봉준호 감독이 제작한 영화 '해무'로 스크린에 데뷔해 지난해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남자 신인연기상도 받았다.

지난해 드라마 '냄새를 보는 소녀'를 끝으로 군 복무를 시작한 그는 내년 8



월 소집해제되면 여러 또래 스타들이 군 복무 중인 상황에서 '캐스팅 1순위'를 예약해 놓은 배우였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소 내용의 진위 여부는 밝혀진 바 없다"며 "사실 여부와 멀어진 추측성 보도이며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서로부터 공식적인 피소 내용을 전달받은 바 없으며 향후 경찰의 출석 요구가 있으면 수사에 충실이 임해 무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 측과 진위 공방이 시작되면 그간 쌓은 이미지와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악화된 여론에도 박유천의 일부 팬들은 인스타그램에 무혐의를 믿는다는 다양한 문구의 해시태그를 올렸다.

이들은 '위 빌리브 인 유'(We believe in you), '킵 칼 앤드 빌리브 인'(KEEP CALM AND BELIEVE IN), '위 빌리브 인 6002'(WE BELIEVE IN 6002) 등 박유천을 믿는다는 내용과 함께 그의 사진을 게시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욱정PD의 자연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재)	00 수상한 휴가(재)	00 청사 55주년 특별기획 <옥중화>(재)	00 닥터 365 05 정은표의 세계문화유산순례 3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12	00 KBS 뉴스 12	00 수목드라마 <마스터 - 국수의 신>(재)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운빨 로맨스>(재)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 55 테마스페셜 55 TV 블로그 품지락
1	00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감성애니 하루			
2	00 시사기획 창 55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류(재)	20 텔레노스터리(재) 25 드림주니어 스페셜 55 텔레노스터리(재)	00 열린 TV 시청자세상
3	05 한국인의 밥상 55 트윈생활제2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55 모두모두 쇼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55 감성애니 하루(재)	25 UEFA 유로 2016 하이라이트	30 고행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비타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고틀라즈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7 35 필동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블로그 품지락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5 일일연속극 <별난가족>	30 글로벌 24 55 외·개·인 X 파일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토론'10' 55 감성애니 하루	00 수목드라마 <마스터 - 국수의 신>	00 수목미니시리즈 <운빨 로맨스>	00 드라마 스페셜 <판따라>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에너지 혁명 세상이 바뀐다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보컬 전쟁 신의 목소리
12	30 동행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류	35 MBC 뉴스 24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레나강 영구동토층>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버섯 시금치 오믈렛과 홀프라이드>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20 꼬마철학자 후고 15:35 호기심나라 오기도 15:50 바오밥집의 파오파오 16:00 출동! 슈퍼왕스(재)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똥똥똥 유치원 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뽕뽕똥 뽕뽕(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1~4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글로벌 아바 찾아 삼만리 20:40 다큐 오늘
06:10 세계의 눈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7:30 주사위 오정 큐비슈 07:45 뽕뽕똥 뽕뽕이 08:00 똥똥똥 유치원 1~3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출동! 슈퍼왕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공부 두뇌를 깨워라>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 초대석 13:40 사이틴3 왔다 사춘기 13:50 이말 스페이스 정글 14:00 책과 팜 14:30 미앤마이로봇 15:00 모피와 친구들	20:50 세계테마기행 <남만 알프스 기행, 스위스 3부 - 미터홍루와 티롤리스> 21:30 한국기행 <여름 3부 출겨운 나의 동강> 21:50 EBS 다큐 프라임 <계곡을 잇는 비행, 케이볼마을의 여름> 22:45 극한직업 <양봉하는 사람들> 23:35 장수의 비밀 <95세 동갑내기 로맨스> 24:05 지식채널 e 24:10 EBS 초대석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5일(음 5월 11일 戊辰)
子	48년생 정반대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편이다. 60년생 내색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더 낫다. 72년생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는 것이 지혜롭다. 84년생 관인하 사고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우하다. 행운의 숫자 : 18, 07	42년생 바야흐로 길운이 한창 피어날 때이니라. 54년생 방심하지 말고 새어나가는 점이 없지 않게 날마다 살펴봐야 한다. 66년생 과학적인 진보가 있었다. 78년생 가장 근본적인 면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83, 70
丑	49년생 주변에 인연이 박한 이들이 보인다. 61년생 원인은 돈 때문에 발생한 일임을 제대로 인식하자. 73년생 처음에는 불리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리라. 85년생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행운의 숫자 : 69, 66	43년생 마음의 문을 연 만큼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반응하리라. 55년생 주된 것에 혼신의 힘을 쏟아 부어야 할 때다. 67년생 협소성으로 인해서 가치가 금상송하게 된다. 79년생 총체적인 점검을 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02, 81
寅	50년생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화목함이 바람직하다. 62년생 유지하고 있을 때 효과적이다. 74년생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대단히 혼란스럽겠다. 86년생 평소와 생각지도 않은 기회가 찾아 올 것이니 잘 살펴라. 행운의 숫자 : 88, 54	44년생 일장일단이 있음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지혜롭다. 56년생 생 변화하는 형세이니 기민하게 응대해야 한다. 68년생 거슬러더라도 충고에 귀 기울이는 것이 옳다. 80년생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행하는 것이 실속 있다. 행운의 숫자 : 96, 72
卯	51년생 건실한 기반 위에서만 융성하게 될 것이다. 63년생 단순하게 생각하다가가는 낭패를 본다. 75년생 번거로운 뿐이며 의미도 없다. 87년생 때도 때도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으니 합리적인 판단을 하라. 행운의 숫자 : 19, 71	45년생 속단은 연쇄적인 폐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57년생 선의와 정사를 가리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후회한다. 69년생 마지못해 상항까지 지켜보고 최종 선택을 하라. 81년생 보이지 않는 작용력을 감지할 필요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23, 05
辰	40년생 지금 실행하지 않으면 후회가 막심할 것이다. 52년생 참으로 난감할 수다. 64년생 틀림없을 것이니 노파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76년생 건나짚었다 가는 망신당하는 수가 있다. 88년생 본원적 가치를 염두에 두라. 행운의 숫자 : 59, 36	46년생 임시변통이라면 문제가 속출할 수도 있다. 58년생 도움이 절실하니 몸을 낮추고 구하라. 70년생 체면치레는 소모적인 국면으로 이를 것이다. 82년생 미세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행운의 숫자 : 87, 86
巳	41년생 함께하는 것이 낫다. 53년생 지나친 사양도 결례임을 알아야 한다. 65년생 의식을 달리해야겠다. 77년생 쓸모없다고 생각해 왔던 것이 오히려 유용하리라. 89년생 상대에게 부담감을 줄 필요까지는 없다. 행운의 숫자 : 80, 44	47년생 확실한 절제와 과단성 있는 실행이 절실한 때이다. 59년생 여러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들었다. 71년생 처음처럼 그대로 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83년생 피하거나 보류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처함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49, 1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